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

▶ **8회 예고**
별궁에 든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의 아이를 잉태한다. 다르마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빵갈로바뜨사를 찾아간다. 빵갈로바뜨사는 빈두사라왕이 북서쪽으로 떠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다르마는 왕의 권유대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



빈두사라왕의 왕비가 되다

다르마는 암바니가마의 호의와 견제라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몇 달을 보냈다. 어느 새 가위질이 손에 익어 왕족과 어린 왕자들의 이발을 도맡아 할 때도 많았다. 암바니가마가 빈두사라왕의 부름에 궁으로 갈 때는 다르마가 왕족과 어린 왕자들의 이발을 책임지곤 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익숙해지자 얼굴 형태에 따라 멋을 부려보기도 했다.

암바니가마가 또 다시 궁으로 불려들어 간 날이었다. 락슈미띳사가 희소식을 물고 와서 이발소 문을 연 채 말했다.

"왕비님, 밖으로 좀 나와 보셔요."

"왜 그래?"

수드라 여인들이 귀를 쫑긋거렸지만 락슈미띳사가 다르마를 이발소 밖으로 불러냈다.

"방금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만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수시마 왕자님이 이발을 한대요. 저더러 이발소 안을 청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구루 말씀대로 하자. 첫째왕비님의 아드님이 오신다고 하니 나도 설레는구나."

"수시마 왕자님은 이발을 싫어해서 머리만 감고 가곤 했죠."

"어쨌든 준비하고 있자구나. 나는 이발 도구를 청소해 놓아야겠어."

이발소 안으로 들어온 다르마는 가위와 면도를 전단향나무 분말을 뿌린 물에 씻었다. 락슈미띳사는 수건으로 의자를 닦았다. 이발소 안은 전단향나무 향기가 진동했다. 수드라 여인들은 세수하고 머리 감는 물을 데우기 시작했다. 과연, 나무통에 든 물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무렵에 빵갈로바뜨사와 수시마 왕자가 나타났다. 수시마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듯 어른 손바닥만 한 나무판자를 들고 있었다. 다르마가 곁눈으로 보니 나무판자에는 산스끄리뜨어 글자들이 빼꼭히 쓰여 있었다. 다르마가 빵갈로바뜨사에게 물었다.

"왕자님께서 이발하러 오신거죠?"

"이발사여, 오늘은 이발도 할 거예요. 물론 머리를 감을 거고요."

어린 수시마가 또박또박 말했다. 말투로 보아 총명하고 신중했다. 다른 때는 머리만 감고 갔는데 오늘은 이발까지 한다는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다르마는 수시마를 의자로 안내했다. 수시마가 의자에 앉자마자 빵갈로바뜨사는 다른 왕자를 만나야 한다며 이발소를 나갔다. 다르마가 물었다.

"어떻게 머리를 만질까요? 왕자님."

"알아서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산스끄리뜨어를 외울 수 있나요?"

"왕자님, 그건 안 된답니다. 옷에 머리카락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별 수 없고요."

수시마는 다르마의 말에 고분고분했다. 산스끄리뜨어가 쓰인 나무판자를 다르마에게 맡겼다. 다르마는 푸른 비단 천으로 수시마를 감쌌다. 수시마의 작은 얼굴만 청동거울에 비쳤다. 그런데도 수시마의 눈길이 자꾸 나무판자로 가는 것 같아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불렀다.

"락슈미띳사여, 왕자님을 위해 나무판자 좀 들고 있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 수시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 이발사여. 나의 엄마 같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발사일 뿐입니다."

락슈미띳사가 대담하게 거들었다.

"왕자님, 이분은 왕비님 같이 기품이 있는 분이랍니다."

"맞아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엄마에게 얘기해서 대왕님을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저는 실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수시마는 자신의 머리를 청동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면서 말했다.

"내 얼굴이 훤해졌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궁에서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발을 마친 수시마가 갑자기 나무판자를 다르마에게 내밀었다.

"자, 선물이니 받아요."

"왕자님, 나무판자에 적힌 산스끄리뜨어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발하면서 마저 다 외웠으니 이젠 필요 없어요."

"아, 총명하시군요."

"빨리어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 같이 밋밋한데 산스끄리뜨어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웁죠."

락슈미띳사는 수시마 왕자가 다르마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르마가 엄마처럼 자애롭게 수시마 왕자의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이발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발이 끝나자 빵갈로바뜨사는 정확하게 이발소로 수시마를 데리러 왔다. 빵갈로바뜨사도 수시마의 머리를 보더니 만족했다.

"이제, 더 배울 것이 없겠소."

"구루시여, 왕자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을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마는 산스끄리뜨어가 적힌 나무판자를 빵갈로바뜨사에게 내밀었다. 빵갈로바뜨사는 나무판자를 받아들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르마여, 이건 왕자님들이 돌려가며 보고 익히는 나무판자지요. 그러니 선물이 될 수 없는 물건이오."

빵갈로바뜨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왕자님은 마음씨는 좋으나 공사가 분명하지 못해 탈이야.'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의 입술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마음은 착하지만 무언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빵갈로바뜨사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다르마가 보기에는 수시마의 선함이 더 성장한 후에라도 그런 허물까지 덮고도 남을 것만 같았다.

어린 수시마 왕자가 궁중 이발소를 다녀간 지 한 달 닷새 만이었다. 이발사 암바니가마가 외출하고 없을 때였다. 수시마가 첫째왕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빈두사라왕의 전령이 이발소로 왔다. 전령은 빈두사라왕께서 다르마를 부른다는 명을 전하고 기다렸다. 다르마는 당황했지만 락슈미띳사가 도와주었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암바니가마 언니가 궁에 들어갈 때는 전단향 물에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대왕님을 뵈러 가는 길이니 예의를 갖추어야겠지."

"이발 도구는 제가 챙길게요."

"고마워. 지금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어.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아."

"제가 따라가 드릴까요?"

"제발 그래줘. 몸이 떨려서 실수할지도 몰라."

"제가 락슈미 신에게 기도할게요."

수드라 여인들이 수건에 물을 묻혀 내실에 있는 다르마의 몸을 닦아주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까시국에서 생산한 붉은 비단 사리를 내놓았다. 아마도 왕족이 분실한 옷이 틀림없었다. 수드라는 비단옷을 입을 수 없었다. 바이샤 이하는 흰색 무명옷만 입어야 했다. 다르마는 브라흐민이기 때문에 붉은 사리를 입을 수 있었다.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이 보낸 전령을 따라갔다. 락슈미띳사도 이발 도구가 든 바구니를 들고 다르마를 뒤따랐다. 궁궐은 온통 대리석 건물이었다. 귀족들이 사는 벽돌집보다 웅장하고 천정이 높았다. 햇살이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스며들어 궁궐 안은 생각보다 밝았다.

그러나 왕과 귀족의 위엄이 써늘한 냉기처럼 감돌아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를 위축시켰다. 궁궐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리석 벽면에 새겨진 벽화와 조각품들이 많아졌다. 어떤 벽화는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의 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이 마가다국을 정복한 뒤 마우리아왕조를 건국하는 조각품도 눈에 띄었다.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별실로 들어갔다. 왕이 이발하는 장소인 듯 의자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 별다른 장식은 없었다. 높다란 천정 바로 밑에 뚫린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와 빛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빛기둥은 의자에서 멈추었는데, 의자는 황금색으로 눈부셨다. 이윽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다르마는 직감적으로 빈두사라왕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문 옆에 섰다. 왕의 전령이 큰 문을 열자 빈두사라왕이 긴 옷자락을 끌며 들어왔다.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빈두사라왕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렸다. 잠시 후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그대가 다르마인가?"

"예, 짬빠성에서 온 다르마이옵니다."

"고개를 들라."

순간,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의 목소리가 아버지와 닮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안도감이 들었다.

"대왕님, 이발하는 솜씨가 뛰어나지 않사오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허허허. 겸손하구나."

락슈미띳사는 빈두사라왕의 위엄에 압도당한 나머지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런 탓에 이발 도구가 든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다르마는 바구니에서 비단 천을 꺼내 빈두사라왕의 가슴에 둘렀다. 왕의 몸에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은 몹시 피곤한지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토막잠을 잤다.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았다. 락슈미띳사는 빈두사라왕의 잠든 자세가 흔들릴 때마다 안절부절못했지만 다르마는 차분하게 이발을 했다. 이발사 암바니가마로부터 혹독하게 이발 기술을 배운 덕분이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위질은 빠르고 정확했다. 면도 역시 쓱쓱 빗나가는 실수가 없었다.

눈을 뜬 빈두사라왕이 청동 손거울을 들고 보더니 매우 만족했다. 암바니가마가 고지식하게 항상 똑같이 이발하는 데 비해 다르마는 자신을 훨씬 젊어 보이게 머리를 손질한 듯했다. 빈두사라왕이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10년 정도 젊어 보이는구나."

"대왕님, 원래 젊으시옵니다."

"허허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르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직 대왕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옵니다."

빈두사라왕이 의아해하며 다르마에게 물었다.

"나는 끄샤뜨리아 왕이요 너는 천한 이발사인데 어찌 감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대왕님, 저는 본래 이발사가 아니라 붉은 사리를 입고 있는 브라흐민의 딸이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대왕님의 아내로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야 빈두사라왕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오, 빵갈로바뜨사 수행자한테서 너의 얘기를 들은 것도 같다. 내가 허락을 했지.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실제로 빈두사라왕은 다르마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언젠가 빵갈로바뜨사에게 짬빠성에 사는 여인을 왕비로 삼아달라는 청을 받고 허락했지만 15명의 왕비와 후궁들 때문에 곧 망각해버렸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다시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발 기술을 배우라고 했느냐?"

"막내왕비님께서 저를 이발소로 보냈사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너는 더 이상 이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는 별궁에서 살 것이니라."

"대왕님, 저의 소망은 이루어졌으나 또 하나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 말해 보아라."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이발소 소녀를 별궁에 두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거야 시중 들 사람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

빈두사라왕은 곧 손을 휘휘 저으며 별실을 나갔다. 별실의 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안은 채 나직이 흐느꼈다. 〈계속〉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무료특강 (2년코스)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 다루는 법 (목탁·요령·북·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일죽면 고은리)
교육문의 사무총장 원기스님 010-5306-0856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수업 : 오전 9시에 시작		
오전 9시	천도재 / 강의실	법원스님
오전11시	작법무 시간 / 강의실	법원스님
점심시간		
오후 1시	작법무 보충수업 / 강의실	
오후 1시	교양과목 (태평소) / 별채	시우스님
오후 2시	귀장술 / 강의실	원기스님
오후 3시	북타법 / 강의실	원기스님

※ 수업은 시간의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행사 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점안식,
1000일기도 회향법회, 고사, 산신재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259
[부회장] 일구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직인 변경 공고

종정 새 직인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직인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 종정 직인은 2021년 2월 5일부로 기존 종정 직인을 폐기합니다.
차후 제20대 총무원장 임명과 종정 교시에도 해당 종정 직인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종정 직인 위·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니, 본 종 원로원, 총무원,
중앙종회, 각 교구종무원의 스님은 변경 등록한 종정 직인을 확인 양지 바랍니다.

불기 2565(2021)년 2월 5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